

#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개발... 통합시장 후보 '3인 3색'

## 6·3 지방선거 이슈

### 신정훈, 광주형 실리곤벨리 조성 민형배, 기후·환경 미래도시 실증 김영록, 첨단융복합산업 콤플렉스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역으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선정되면서 광주 군·민간 공항이 떠난 후 남게 되는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에도 가장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예상됨에 따라 6·3 지방선거 통합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광주형 실리곤벨리', '기후·환경 중심 미래도시 실증지', '첨단 신도시'

등 각자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역으로 현재 무안국제공항이 들어서 있는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지정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첫 행정절차로, 추후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이전 후보지 선정,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이전부지 선정 과정 등이 남아있다.

군공항 이전 부지가 무안으로 최종 확정된 후에는 '시행자'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옛 광주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기부대 양여방식'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법적 규정이며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도 기존의 사업을 승계하도록 돼 있어 시행자는 기존 '광주시'에서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돼 오는 7월 공식 출범 후 개발계획 수립이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전지역 확정까지 1~2년, 착공부터 완공까지 8~10년이 지난 후 종전부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신정훈·민형배·김영록(기호순)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상무지구 2.5배 크기의 광주 군공항(8.2km)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구상을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버금가는 국가 정원을 넣어 문화관광 휴양복합공간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민 예비후보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송정권 일대와 하나로 묶어 미래의 관문도시를 만드는 전략을 제시했다.

군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송정권 일대 전반의 도시 재편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산강과 인

우선 신 예비후보는 기존 부지에 '광주형 실리곤벨리 조성'이란 청사진을 제시했다. 로봇·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 모빌리티 기업이 집적된 '미래산업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국가 정원을 넣어 문화관광 휴양복합공간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민 예비후보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송정권 일대와 하나로 묶어 미래의 관문도시를 만드는 전략을 제시했다.

군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송정권 일대 전반의 도시 재편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산강과 인

접해 있는 종전부지를 기후·에너지·도시기술 실증특구로 지정해 기후위기 대응형 저류공간과 친수공원·생태복원·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이 결합된 미래도시 실험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공항이전 부지를 판교 테크노벨리와 부산 센텀시티를 능가하는 첨단 신도시 첨단융복합산업 콤플렉스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헤든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를 바탕으로 컨벤션과 호텔 등 관광시설까지 갖춘 첨단 신도시를 만들어 AI 첨단 신기술 국제 행사도 열릴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 시작됐음을 의미하지만 완전이전까지는 최장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며 "통합특별시장 당선자의 계획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 청사진도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당계 후보 5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청 안 정치개혁 연합 농성장에서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공동선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진보당 윤중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 민주당 등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 발표

###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비례대표 확대"

#### 10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은 2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등 정치개혁에 합의했다.

또한 오는 3일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오는 10일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선거제도 관련 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국민의힘과 협상이 정치개혁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들 5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서'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적극 추진,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지역구 대비 10%에서 상향 추진, 관련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5당 실무협의체 가동,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0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를 주도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원내사령탑으로서 5당 실무협의체를 힘 있게 가동해 오는 10일 이전까지 법안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전남광주교육 플랫폼, 이정선 지지 선언

### 꿈드림미·365스터디룸 등 맞춤형 정책 높이 평가

광주 지역 40여개 시민·교육 단체가 이정선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사진)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지난 임기 성과를 '실력 중심의 교육 혁신'으로 규정하며, 전남과 광주의 교육 통합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빛고를 교육포럼, 빛고를 문화예술봉사단, 한국노총 전국택시 광주전남지역본부, 원코리아문화예술 총연합회 등 40여 단체로 구성된 '전남광주교육 플랫폼'은 2일 오후 이정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교육의 질적 도약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검증된 교육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이념 중심 교육이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임기 중 오직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매진해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를 배출하고, 기능 명장을 양성하는 등 광주 교육의 자부심을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후보가 추진한 '365 스터디룸' 확충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창의 사고력 중심의 '다양한 실력' 정책이



이정선

교육 현장의 체질을 대폭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도 지지의 주요 배경이 됐다.

단체들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실력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꿈드림미 바우처'와 '교육기본소득'을 도입한 점은 따뜻한 교육 실력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과제로 떠오른 '전남·광주 교육 통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인구 소멸과 지역 위기는 거대한 파도 앞에 교육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이 후보만이 두 지역의 인프를 하나로 묶어 '아시아 교육 허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교육 현장이 정치적 이념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검증된 실력과 준비된 정책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교육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이정선 후보와 끝까지 동행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윤수 기자 joinsu@

## 6·3 지방선거 브리핑

### 윤병태 '청년 100일 보장제' 공약 졸업·실직 후 100일 내 취업·훈련 등 연계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청년의 취업 공백 해소와 주거 안정, 전세사기 예방 등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윤병태 예비후보는 2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나주 청년 100일 책임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졸업 또는 실직 이후 구직 계획이 어려운 청년들이 방지되지 않도록 '100일 이내' 취업·직업훈련·인턴·창업 등을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고용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 예비후보는 "청년의 공백을 기회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단순 지원을 넘어 취업과 정착이라는 결과를 책임지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를 비롯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와 함께 지난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150호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타 지역에서 나주로 유입된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확대, 신혼부부 임차비 지원 단계적 상향 등을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나주=조현찬 기자 pose007@gwangnam.co.kr



### "박성현, 경제도시 만들 적임자" 광양시 전직 공무원 40여명 지지

광양시 전직 간부 공무원 40여명이 2일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사진)를 지지 선언했다.

이정희 전 총무국장, 문병환 전 안전도시국장, 문영훈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광양시 전직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박성현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박성현 후보가 성장과정과 인품, 경력을 볼 때 호남 제일의 부자 경제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 후보라고 믿기에 지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 도시성장은 멈춰있고 예산도 제자리 걸음이고 시장경제는 바다이며 시민이 열원했던 코스트코 유치도 실패했다"면서 "지난해 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83.6%가 인사에 불만을 표출했고 국민권의 위 발표 종합 정렬도는 4등급으로 추락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는 최하위 5등급이라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때 행정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단력과 추진력, 애항심, 애민정신을 갖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 강진원 "군민께 선택 받겠다" 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강진원 강진군수(사진)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강진군수 선거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강 군수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께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탈당한 그는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출마는 당내 경선 배제에 따른 결정이다. 강 군수는 앞서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고,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자 면접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월 26일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이를 근거로 예비후보 적격심사 재진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강진군수 경선 후보로 차영수, 김보미 후보를 확정하고 6~7일 이틀간 경선을 실시한다.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군수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되면 민주당 후보와의 3자 구도 형성 여부, 표심 분산 등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이남오, 함평 미래위한 선택" 이성일 지지층,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경선을 앞두고 경선배제된 이성일 예비후보(사진) 지지자가 이남오 예비후보(사진)를 지지 선언하고 나섰다.

이성일 예비후보 지지자 모임 소속 50여 명은 2일 이남오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 지지를 밝혔다. 이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변화의 시점에서 함평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이남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이남오 예비후보는 공직 경험과 마을 이장, 기초의원, 군의회 의장 등을 거치며 민생 현장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해 왔다"며 "기초의원 활동 중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정책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가 담겼다. 이어 "이남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지자 모임은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활동해 온 이성일 예비후보를 지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기준에 따라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현 함평군의회 의장인 이남오 예비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이상의 현 군수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성일